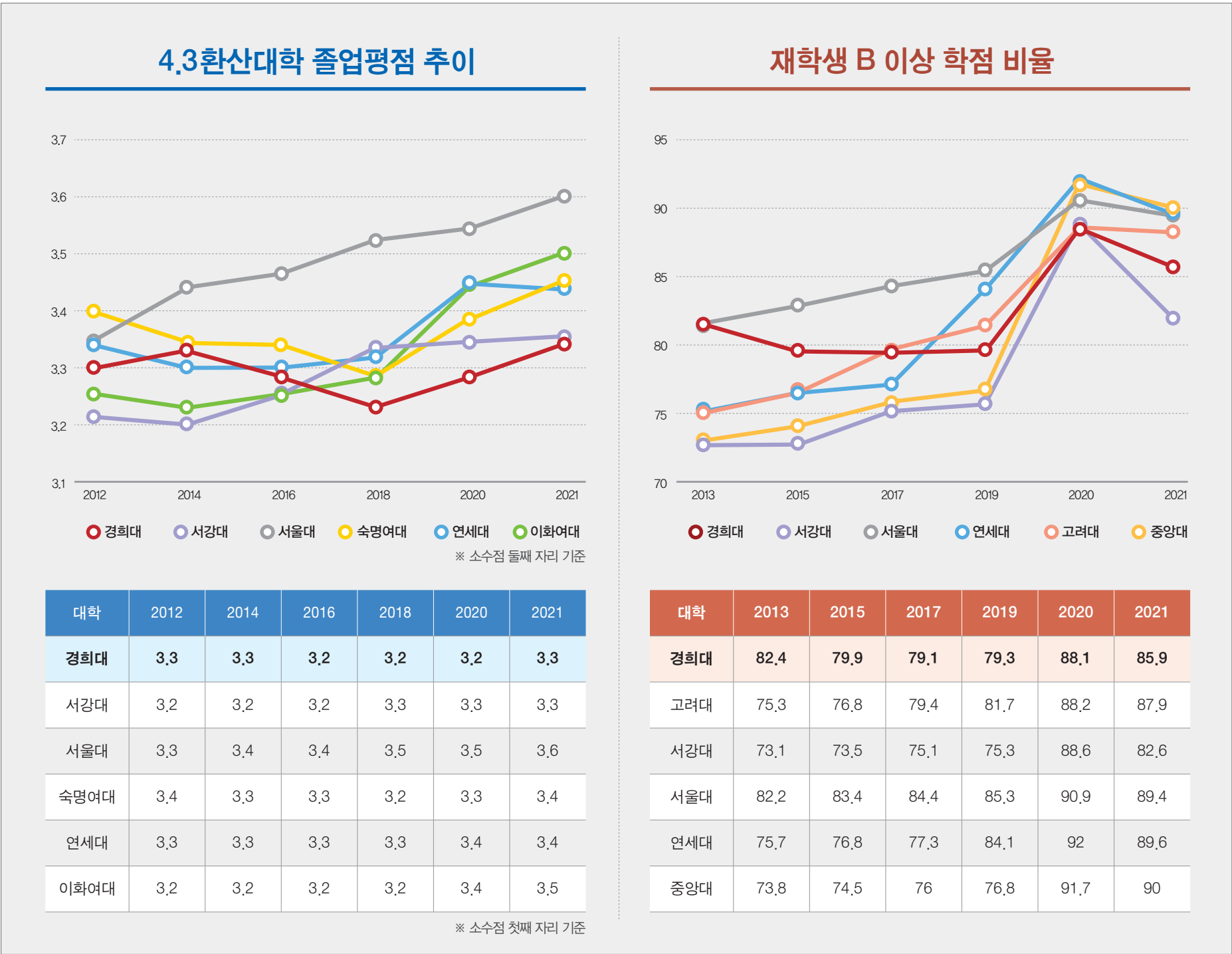


## 6 기획-학점표준화 제도 개선



# ‘학점 잘 주는 대학’에서 ‘학점 불리한 대학’으로 학점표준화 제도 개정 급물살타나

김경민 기자 elude12@khu.ac.kr  
이진규 기자 lj6348@khu.ac.kr

## 총학생회 학점표준화 제도 개선 나서 개정 논의 10년만

10년 전 2012년, 우리학교는 학점 표준화 제도를 개선해 시행을 앞뒀다. 당시 학점표준화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우리학교가 이른바 ‘학점 잘 주는 대학’으로 불릴 정도로 학점인플레이션(학점인플레이)이 높은 대학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우리학교는 주요 사립 대학 7곳(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중 평균 성적 A0 이상인 학생의 비율이 전체의 41.94%로 1위, B0 이상인 학생의 비율이 전체의 82.13%로 1위를 기록했다. (관련기사: 우리학교, 주요대학 중 학점인플레이 1위, 대학주보 1522호(2012.09.10)).

기성 언론을 중심으로 대학가 전반의 학점인플레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우리학교가 학점인플레이의 대표 사례로 지목되자 우리학교는 2009년 학점표준화 제도 변경안을 내놔다. 상위 40% 이내 학생에게 B+를 부여하는 학점표준화 제도를 A는 상위 30%, B는 상위 70% 이내로 제한해 학점인플레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변경안의 골자였다. 3년간의 유예-준비 기간을 갖고

201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변경안은 같은 해 양 캠퍼스 총학생회(총학)의 강한 반발로 유보됐다.

유보 끝에 학점표준화 제도 변경안은 결국 폐지됐지만, 이후에도 학내에서는 학점인플레이로 대외평가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2014년 교무처는 교감사에게 성적 산출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경영대학은 2015년 전체 학점 평균을 B0(3.0) 수준에 맞추는 비제로물을 도입하는 등 우리학교는 엄정한 성적평가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학점인플레이에 대한 학내 여론은 180도 바뀐 모양새다. 학생들 사이에서 우리학교는 ‘학점

잘 주는 대학’이 아닌 ‘학점 안 주는 대학’이라는 자조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는 타 대학보다 낮은 학점으로 취업 및 로스쿨 등 진학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대면 수업으로 성적평가 방식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회귀하면서 학생들의 ‘상대평가 발(發)’ 학점 불안이 커지자 총학도 적극적인 개선 요구에 나섰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은 지난 22일 서울캠 소통 간담회에서 “학점표준화 제도로 인해 다른 대학에 비해 학점 취득에 불필요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대학에 성적평가 방식의 수정을 요청했다.

보수적인 성적평가 기조를 취해왔던 대학도 총학의 요구에 대해 ‘취

업과 진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적평가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며 화답했다. 학생과 대학 모두 현 성적평가 방식이 불리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학점표준화 제도는 관련 논의가 진행될 지 10년 만에 개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이 이뤄진다면 1994년 2학기 학점표준화 제도가 도입된 지 약 30년 만에 성적평가 방식이 변경되는 것이다.

**우리학교 학점 내려갈 때  
타 대학 학점 상승으로 학점 역전  
학생들 취업·진학 경쟁에 밀릴까  
전전공금**

성적평가 방식을 두고 학내 여론이

학교명	주요 新 성적평가방식·제도	내 용
연세대	S/U (Satisfactory/Unsatisfactory)	• C0 이상: S / C0 미만: U *P/F와 유사 • 제1전공 승인자 中 소속학과 이외의 타전공 과목 • 학기당 6학점, 총 18학점 이내
서울대	타 학과(부) 전공 교과목 성적평가방법 선택제	• A~F방식과 S/U방식 中 선택 • 1,159개 교과목 대상
성균관대	성취중심 절대평가 교과목 및 수업 절대평가	• 수강생 中 비전공자 있는 경우 절대평가
	C/L (Cross-Listing)	• 서로 다른 전공 간 융합교육에 초점 • 성취중심 절대평가 교과목 및 수업에 해당

타 대학 성적평가방식

역전된 데에는 실제로 우리학교의 학점이 타 대학에 비해 불리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취업·진학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점도 학생들의 불안을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리신문이 대학정보공시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우리학교의 B학점 이상 재학생 비율은 82.2%로 서울대에 이어 \*서울권 대학 29개교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이듬해에는 82.4%로 서울대를 제치고 서울권 대학 중 B 이상 학점 비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3년을 기점으로 우리학교의 B학점 비율은 2015년 79.9%, 2019년 79.3% 등을 기록하며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주요 대학들이 일제히 B학점 상승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절대 학점인플레이가 나타난 가운데 2020년과 2021년 B학점 비율은 각각 88.1%, 85.9%로 두 해 모두 서울권 대학 29개교 중 20위를 기록했다. 10년 만에 서울권 대학 중 학점인플레이 상위권에서 하위권으로 역전된 것이다.

졸업학점에서도 타 대학과의 학점 역전이 이어지는 추세다. 2014년 3.33으로 고점을 찍은 우리학교의 졸업학점은 하락세를 거듭해 2019년 3.22로 저점을 기록했다. 다수의 대학은 반대로 졸업학점이 상승하면서 2018년부터는 학점 4.3 환산방식을 택하는 서울권 대학 6개교 중 우리학교의 졸업학점이 가장 낮은 상태다. 4.3 환산방식 대학 중 졸업학점이 가장 높은 서울대와 비교하면 격차는 지난해 기준으로 0.26점에 달한다. 2012년엔 격차가 0.05점에 불과했지만 10년 동안 격차가 5

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학생들의 ‘타교 대비’ 학점이 불리하다는 주장이 일부 타당한 셈이다.

미미한 학점 차이가 취업·진학에 유불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타고 대비 학점 격차 확대는 우리학교 학생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취업난이 심해지고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입시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학생들이 체감하는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취업준비생이라고 밝힌 홍민혁(러시아학 2017) 씨는 “학점이 취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타 대학에 비해 학점 취득에 불리한 것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개정된 GPA 백분위 환산식도 취업·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입김이 작용된 바 있어 학점표준화 제도 개선을 향한 학생들의 요구는 거센 전망이다. 이에 우리학교는 학점표준화 제도 변경을 예고한 상황이다. 교무처 학사지원팀은 “9월 개교 중 20위를 기록했다. 10년 만에 서울권 대학 중 학점인플레이 상위권에서 하위권으로 역전된 것이다. 졸업학점에서도 타 대학과의 학점 역전이 이어지는 추세다. 2014년 3.33으로 고점을 찍은 우리학교의 졸업학점은 하락세를 거듭해 2019년 3.22로 저점을 기록했다. 다수의 대학은 반대로 졸업학점이 상승하면서 2018년부터는 학점 4.3 환산방식을 택하는 서울권 대학 6개교 중 우리학교의 졸업학점이 가장 낮은 상태다. 4.3 환산방식 대학 중 졸업학점이 가장 높은 서울대와 비교하면 격차는 지난해 기준으로 0.26점에 달한다. 2012년엔 격차가 0.05점에 불과했지만 10년 동안 격차가 5

**학점표준화제도개정  
‘B+ 이상 비율 늘리기’  
효과는 지켜봐야**

총학은 상위 40% 이내에만 B+를 부여하는 현행 학점표준화 제도의

비율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B+까지의 누적 비율이 타 대학보다 많게는 20% 이상 적어 학점 표준화 제도로 학생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대평가가 진행됐던 2019년 1학기 기준으로 \*\*우리학교 학생들의 전공성적 B+이상 누적 비율은 45.6%로 전국 대학 중 가장 낮았다. 당시 동 비율이 가장 높았던 대학인 이화여대는 74.4%로 우리학교와 비교하면 약 30%나 높았다. 서울권 대학 평균인 62%와 비교해도 격차가 현저히 벌어졌다.

우리학교의 B+까지의 누적 비율이 전국 최하위인 것은 학점표준화 제도의 특수성에서 비롯된다. 주요 대학은 학점 부여 비율을 A와 B로 구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학교는 학점 부여 비율을 B+까지로 제한하다 보니 타 대학과 B+ 이상 누적 비율의 격차가 큰 것이다. 우리학교의 A 비율은 서울권 대학 중 평균 수준이지만 B+ 자체의 비율은 전국 대학 중 유일한 한 자리대다. 교감사가 한평년 ‘B+ 이상 40%’의 비율에서 A를 최대한 많이 부여하려다 보니 학점표준화 제도를 준수하기 위해선 B+를 덜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타 대학이 B+, B0, B- 비율을 30~4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학점표준화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제도 개정은 ▲B+ 이상 누적 학점 비율 확대나 ▲A 비율, B 비율 구분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B+ 이상 누적 학점 비율을 50% 등으로 확대하거나 타 대학의 방식처럼 A학점 누적 비율 40%, B학점

이상 누적 비율 70% 등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점표준화 제도 개정만으로 타 대학과의 학점 격차가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다른 대학들이 소위 ‘제 식구 챙기기’로, 규정된 학점 부여 기준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대표 대학으로 불리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2019년 1학기 재학생 A학점 비율은 50%가 넘었다. 규정된 학점 부여 기준보다 최소 15%가량 A학점을 더 부여한 것이다. 타 대학은 규정보다 과도하게 성적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점표준화 제도의 개선 효과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대학 간의 ‘학점 퍼주기’ 경쟁은 향후 대학가의 연쇄적인 학점인플레이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학점 부여 비율 확대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실질적인 학점 격차를 막기 위해선 대학가 전반의 성적평가 엄정성 기초 확립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절대평가 도입 이후 언론을 중심으로 대학가 전반의 학점인플레이가 비판을 받고 있어 제도 변경 수위에 대한 학교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 다양화  
그러나 성적평가 방식  
여전히 ‘줄 세우기’  
새로운 성적평가 방식 적용돼야**

최근 우리학교는 ▲마이크로디그리 ▲학생설계전공 ▲융합전공 등의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며 적극적으로 융복합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융복합 교육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성적평가 방법은 여전히 ‘줄 세우기’식 상대평가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있지만, 성적평가는 약 30년 전인 1994년에 멈춰있는 셈이다.

우리학교와는 달리 요즘 대학가는 융복합 교육 및 복수 전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P/F 또는 S/U 등의 급락제나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추세다. 상대평가의 학점 경쟁에서 오는 성적 부담을 완화해 교육에 집중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연세대는 작년 1학기부터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학생이 S/U(Satisfactory/Unsatisfactory) 평가를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S/U 평가는 취득한 성적 이 C0 이상일 경우 S, C0 미만일 경우 U로 성적을 부여하는 일종의 급락제다. S/U 제도는 ▲타 계열 및 학과 과목에 대한 자유로운 수강 분위기 조성 ▲학문 간 교류 증진 ▲융합적 사고력 배양 등을 위해 도입

됐다. S/U 평가 신청은 제1전공 혹은 제2전공 등 소속 학과 이외의 타전공 과목을 수강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신청 한도는 학기당 6학점 이내, 재학 중 총 18학점 이내로 제한된다.

서울대는 올해 1학기부터 ‘타 학과(부) 전공 교과목 성적평가방법 선택제’ 대상을 기존 15개에서 1,159개 교과목으로 확대했다. 학생들은 대상 교과목의 성적 평가 방법으로 A~F 방식(등급제)과 S/U 방식(급락제) 중 선택할 수 있다. 이 역시 학생들의 학점 부담을 덜고 다양한 학문을 쉽게 접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성균관대의 경우 C/L(Cross-Listing) 과목 제도가 눈에 띈다. C/L 과목은 융합교육에 초점을 맞춘 수업으로, 서로 다른 전공 간의 연계가 목적이다. 유재민(성균관대 기계공학부 2019) 씨는 C/L 과목에 대해 “두 전공 간 시너지에 큰 도움이 된다”며 “복수전공 시 양쪽 전공 학점으로 중복 인정돼 졸업 요건을 충족하기 쉬워져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더 들 수 있게 된다는 점에 매우 유용하다”고 전했다. C/L 과목은 절대평가로 운영된다. 비전공자들의 성적취득 부담을 감경해 타 학과의 수업 수강을 권장하기 위해서다. C/L 과목 수강생 중에 C/L로 지정한 학과의 비전공자가 있는 경우 해당 강좌는 전체 수강생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적용한다.

학점 경쟁은 학생들의 융복합 교육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진다.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은 컴퓨터 공학 등 이공계열 과목 수강을 꺼리는 경향이 크다. 본 전공생과의 학점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학생들의 진로에 학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이들이 학점 경쟁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대학들이 최근 몇 년간 앞다퉀 급락제와 절대평가를 도입한 것도 학점 경쟁 없이 자유로운 수강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융복합 인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학생들을 융복합 교육으로 유인시킬 새로운 성적평가 제도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는 추세다. 미래대 학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융복합 교육을 추진 중인 우리학교도 단순히 ‘성적 더 주기’식 개선이 아니라 교육 효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근본적인 성적평가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 지역 대학 중 재학생 수 5,000명 이상인 학교 기준

\*\*전공인정학생 수 15,000명 이상 학교 기준